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누가복음 24:28-32  
2026년 4월 5일 오전 11시

##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릴 때

< 주역 도우소서 >

예수님께서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막 15:25).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제삼시는 9시입니다. 그리고 제구시, 15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눅 23:44-46). 제구시, 오후 3시에 지성소 휘장 한 가운데가 찢어지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아침 9시에 아침 번제를 드리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 3시에 저녁 번제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오후 3시에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서 아침 번제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시간에 숨을 거두시며, 예수님께서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진 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느니라”(고전 5:7).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입니다.

한편, 로마는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의 시신을 그대로 십자가에 방치하여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뜯어 먹게 하였습니다. 허나 유대 속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신 21:23). 그래서 유대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시신을 일몰 전에 나무에서 내렸습니다. 현대 유대 지도자들은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들을 치위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위 달라 하니”(요 19:3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로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평범한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에 있는 안식일로 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죽여서 치위 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헐떡거리는 죄수를 죽이기 위해 로마 군인들은 쇠몽둥이로 정강이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렇게 다리를 부러뜨리면 몸을 지탱할 수 없고 호흡을 위해 몸을 들어올릴 수 없어서 질식으로 빠르게 사망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총독의 지시를 받아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요 19:32). 현대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요 19:33).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출 12:46).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시신의 처리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수행됩니다. 보통 로마 군인들은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땅에 대충 묻는 것으로 십자가 처형을 마칩니다. 현대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요 19:38). 유대인의 장례법은 시신을 깨끗이 씻고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넣어서 세마포로 싸은 후에 동굴에 넣는 동굴장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요 19:39).

일 리트라는 약 330 그램입니다. 따라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침향 섞인 몰약은 33 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33 킬로그램의 향품은 최대 100 만불의 가치를 지닙니다. 당시 성인의 몸무게가 60-70 킬로그램인데, 100 만 달러에 달하는 향품 33 킬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왕의 장례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3 시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전달된 것은 아마 오후 4 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천문학적 추정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의 일몰 시간은 오후 6 시 20 분에서 30 분 사이였습니다. 일몰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2 시간 30 분입니다. 그래서 정식 절차를 다 밟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요 19:40). 예수님의 시신을 씻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당연히 향유도 바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니고데모가 가져온 침향 섞은 몰약과 함께 세마포로 둘둘 말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가 현재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리노 수의와 같은 자료를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충분히 씻기지 못한 채 급하게 장사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수의에 나타난 흔적을 보면, 채찍질 자국 (수십~100 회 이상), 가시관 상처 (머리 전체), 손목/발 못 자국, 옆구리 창 자국으로 복음서 기록과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피가 흐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피가 씻긴 흔적이 아니라 ‘그대로 굳어 있는 상태’처럼 보입니다. 피가 씻기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것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하게 세마포로 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급하게 장사되시느라 장례에 꼭 필요한 향유도 바르지 못한 채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장례가 이와 같이 치러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꾸짖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마 26:12).

예수님의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눅 24:5-6).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11 절).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글로바입니다. 글로바는 열두 사도의 반열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칠십 제자의 반열에는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눅 10:1). 칠십 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글로바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글로바와 함께 한 팀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망하면 자리를 떠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눅 24:15).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16 절). 예수님은 글로바와 다른 제자를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25 절). 그러나 그 질책의 목적은 교정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글로바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27 절).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형성되기 이전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26 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글로바와 다른 제자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32 절). 마음이 불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을 들을 때,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30-31 절).

말씀과 성찬, 곧 예배의 자리에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으로 눈이 밝아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33 절).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35 절). 절망 가운데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사실은 주님이 이미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도록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도록 성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십시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일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